

# 인간회복과 사회봉사의 요람, 삼육대학교

김 홍 람  
삼육대 총장



## 1. 창학이념과 교육목표

**삼**육대학교는 근대 문명의 여명기인 1906년  
에 의명(義明)이라는 이름으로 평안남도 순  
안에서 학교의 문을 열었다.

삼육학원의 창학 이념은 본래 인간 이해를 위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하여 성서가  
인간은 영(靈)과 혼(魂)과 몸(體)으로 이루어져  
기능하고 있음(살전5:23)을 가르친 바울의 사상  
에서 유래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선(至善)의 상  
태로 창조되었다(창1:26).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을 따라 지어졌다는 이 말에는 교육을 위한 많은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즉, 생각하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질(質)의 능력(akin

power)이 천부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서 사람은 하  
나님처럼 고상한 자유 의지를 소유하였으며 또한  
완전하였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하나님  
의 지선하심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확신, 권위  
에 대한 인정 등을 시험하시는 신성(神性) 위애다  
인간적인 것을 앞세워 놓으므로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후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뒤섞이므로 사람의 마음은 혼돈되고 지적 능력과  
영적 능력은 마비되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  
신 천부적인 지선을 더이상 헤아릴 수 없게 되었  
다. 즉, 성악(性惡)이 된 것이다. 그 후 인간의 본  
성에는 선보다는 악으로 기울어지려는 성벽의 경향  
이 일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양심 또는 초자아  
등으로 이해되는 천부적인 능력의 그루터기가 인간  
속에 남아 있으므로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마음에 간직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인  
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고상하게 창

조함을 입을 수가 있게 된다고 믿는다.

본교는 이러한 성서의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려는 지고한 형이상학적 개념의 교육 이념을 설정하고 이를 이루려는 일체의 의도적인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 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삼육 교육은 영과 혼과 몸의 지·덕·체가 고무 조화되는 전인교육을 위한 천부적인 능력의 개발과 훈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서의 인간 이해를 창학 이념으로 하는 교육 기관은 1992년 현재 세계적으로 5,322개교나 되며 대학 교육 기관만해도 84개소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한문문화권(한국, 중국, 일본, 홍콩)에 있는 이러한 학교들은 모두 삼육(三育)이라는 학교 이름으로 교육을 일관되게 시행해 오고 있다.

1906년 설립 당시의 교육 방침의 특색으로는 덕성교육의 방편으로 신앙교육, 남녀공학, 기숙사 교육 그리고 건강, 체육교육으로 노작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의 결과는 초기 독립 운동가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안창호 선생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출감하여 병원에서 병고를 치르면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음식을 권하는 동지들의 권유에 모든 것을 마다하시고 순안 의명학교의 제품인 포도즙은 진정품이니 그것을 사가지고 오면 좀 마셔 볼 수 있을까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든가 또는 1929년에 열렸던 전국 농산물 전시회에서 토요일(안식일) 때문에 하루 일찍 금요일에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자들의 인기 투표로 결정된 품평회에서 의명 학교가 당당히 2등을 한 일들을 보면 당시의 우리 삼육교육이 상당히 내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후 1935, 36년에 시작된 일본의 신사참배 문제로 발전을 거듭해 오던 의명학교는 큰 수난을 겪게 되었다. 수난은 밖에서만 오지 않았다. 일본의 천왕이 있는 곳을 향한 동방요배와 신사참배에 저항하여 학교의 문을 닫은 일 등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은 그간의 교육의 결과들이었다.

## 2. 현 황

본교는 1948년 현재의 노원구 공릉동 산 223의 입야 20여만 평의 자연 환경이 좋고 쾌적한 부지를 구입하여 학교 시설을 확충하였다. 학교 명칭은 삼육신학원(1951), 삼육신학대학(1961)을 거쳐 1966년에 삼육대학으로 변경 인가를 받아 가정교육과와 농업교육과를 증설하였다. 이로써 본교는 신학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으로서 신학과를 비롯하여 여러 전공의 학과들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1967년에는 영어영문학과를 증설하여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넓혔으며 영어교육의 듣기, 말하기의 어학실습실을 당시 최신식으로 설치하여 언어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이 시설은 미국정부의 공인된 TOEFL 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이 무렵 가정교육과에서는 가정교육 실습관을 건축하고 가정교육과의 학생들이 조를 편성하여 조별로 일주일씩 생활실습을 하면서 교단의 건강식 생활, 예절 생활 등을 통해 창학 이념을 구현하였으며 농업교육과 학생들은 농장, 목장 등에서 일을 하며 노작교육을 통해 학비를 벌 수 있는 기회도 얻고 있었다. 이러한 일은 황종진 교수가 그의 『교육사회학』에 크게 소개하였으며 그후에 종합고등학교를 착상하는 일에 한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1973년에는 간호학과가 증설되었으며,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삼육기술전문학교의 인가를 받아 낙농과와 식품영양과를 설치하였다.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전문학교의 설립은 당시 우리의 숙원사업의 하나였다. 이어서 경영학과(1978), 약학과(1978), 영양학과(1980), 화학과(1980), 음악교육과(1980), 원예학과, 생물학과(1988), 재활치료학과(1991), 낙농자원학과(1991), 사회복지학과(1994) 등이 증설되었으며 러시아어과는 1995학년도에 개설할 계획이다.

1993년에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에 분교로 북방선

교대학을 설치하여 북방선교를 위한 지도자들을 양성하게 되었으며, 또 부설 평생교육원을 개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학문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의 확보와 배출을 위해 1981년에 대학원을 설립하였고 1989년에 전문대학원인 신학대학원을 설립함으로써 학부와 대학원 교육의 연계와 아울러 질 높은 전공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삼육대학은 1994년 7월 현재 병설전문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가진 종합대학교 체제의 학사 발전을 이룩하고 신학박사 학위 과정을 시작하면서 대학의 이름을 삼육대학교로 개칭하고 정관을 변경하여 신학부, 인문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의약학부 등으로 학부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순안 의명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수난의 과정을 거치오면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여 오늘날 대학의 중흥기를 맞게 된 것이다.

**\* 대 학**

- 신 학 부 : 신학과
- 인문사회과학부 :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음악교육과, 사회복지학과, 러시아어과
- 자 연 과 학 부 : 영양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원예학과, 낙농자원학과
- 의 약 학 부 : 간호학과, 약학과, 재활치료학과

**\* 대학원**

- 석 사 과 정 : 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약학과, 화학과
- 박 사 과 정 : 신학과

**\* 신학대학원**

- 석 사 과 정 : 신학과

**\* 병설전문대학** : 낙농과, 전산사무자동화과, 식품제조과, 유아교육과, 음악과, 자동차정비과, 관광영어통역과, 산업미술과, 관광중국어통역과

**\* 부 속 기 관** : 생활관, 부속유치원, 토폴 센터, 평생교육원, 도서관, 대학교회, 과학기기실, 부속농장, 유가공실습장

**\* 부 설 연 구 소** : 예언의 신 연구소, 신학연구소, 종교사회과학연구소, 그리스도인교육연구소, 행동과학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 경관원예연구소, 어학연구소, 생활지도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선교문제연구소

### 3. 삼육대학교의 미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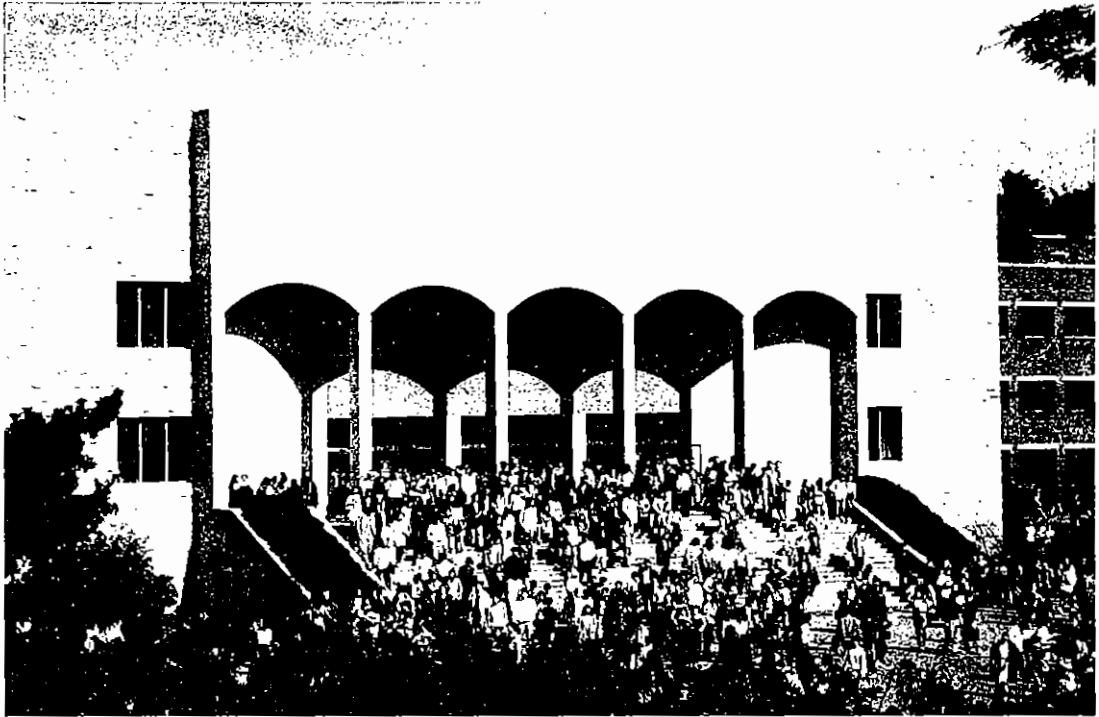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 를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사람이다. 창학이념이 제시하는 이러한 사람을 기르기 위하여 삼육은 무엇보다도 먼저 다음과 같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 1) 인간성 회복을 위한 영적 교육 강조

그래서 생각하는 고상한 품성의 도야를 위하여 성서를 교양 필수로 가르쳐 인간애의 기독교정신을 구현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다.

#### 2) 무감독시험제도의 개발과 이를 명예화 하는 대학 풍토 조성

우리 대학은 이것을 명예 시험제도(honour system)라고 부른다. 특히 명예라는 말을 붙인 것은 대학들이 스스로 명예를 걸고 시험을 통해 정직성 계발을 구현해 가기 때문에 제3 자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본 대학은 1970년 중반부터 신학



▲ 삼육대는 인간이 명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기능한다는 성서의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지·덕·체가 고루 조화되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과와 교양교직학부를 중심으로 이 명예 제도를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본래 우리 대학의 대학원장인 조영일 박사가 제안하였는데, 처음에는 별로 호응이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꽤 많은 학과의 교수들이 관심을 갖고 이 제도의 실시에 대해 연구하며 참여하고 있다. 언젠가는 이 명예 제도가 학내에서 보편화되어 비인간화의 세상에서 인간성 회복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풍토를 지닌 대학이 될 것이다.

### 3) 양적으로 큰 대학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대학 지향

본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대규모 대학으로의 양적인 발전보다 내실있는 대학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창학 이념과 조화되는 사회봉사의 부분에 요청되는 인재를 양성하는 면에만 제한적으로 증파를 시도할 것이다. 즉, 사회 변화

에 맞춰서 인문사회, 자연과학 그리고 나아가 필요한 의약 분야에 증파를 계획한다는 말이다. 학문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심도있는 학문의 연계를 위해 대학원 교육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게 될 것이다.

### 4) 국제 교육 강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등에 있는 자매 대학들을 통해 국제화 교육이 강화되는 대학이 될 것이다. 국제화에 대비하여 국외의 우수한 70여 개의 교단 자매 대학들과의 자매결연 체결로 학문 교류, 학생 교류 및 교육 제도를 교류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가며 해외 분교 설치도 연구 검토할 것이다.

5) 연구와 면학풍토 조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수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교수 방법의 개선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한다. 대학 당국과 교수들

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설립 기관의 정책적인 관심과 격려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예컨대 장학 기금의 확충, 기자재의 강의실 활용, 학생 주도형으로의 수업 방법의 전환 등은 새로운 학습 자극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극을 통해 점차 새로운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므로 연구하고 창조하는 대학이 될 것이다.

#### 4. 대학교육을 위한 제언

한국의 대학교육은 무성한 자율화의 말 속에 대학이 자율화를 전혀 행사해 볼 수 없는 행정적인 규제와 타성 속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화의 말잔치 속에 타율로 숨막힐 듯한 곳이 오늘날 우리 한국 대학의 실정이다.

평가인정제, 교육재원 확보, 규제완화, 무한경쟁, 자율화 등의 말만이 무성하고 무엇 하나 손에 잡히게 정책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으며, 그린벨트 지역 내의 대학은 더욱 그러하다.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에 돈들어 건물을 짓고 경쟁력을 키워 가겠다고 해도 전혀 융통성이 없고 이전에 세워진 대학 통학 버스의 비 가리는 천막의 길이가 규정을 넘는다고 잘라내는 일이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도 사려없이 행해지고 있다.

또 전문대학 입학생들이 적성이 맞지 않아 전과를 하려고 해도 계열이 다르면 안 된다고 교육부가

학칙 개정을 허락하지 않아 잠재력과 자원을 낭비하는 타율이 아직도 걸리지 않는 것이 대학 행정의 현실이다. 지면 관계로 간단히 두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한다.

##### 1) 대학의 자율화

우리의 대학교육은 교육법의 기본 정신이 준수되는 골격 아래 대학마다 그 나름의 창학 이념을 따라 창의적으로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자율이 주어져야만 한다. 이 자율은 간단한 학칙 개정에서 교육 시설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신고 내지는 보고 수준의 행정 절차로 감독 관청이 필요한 점점을 하여 보완하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야 한다.

##### 2) 대학의 교육 재원

대학의 부족한 교육 재원을 기여 입학 제도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우리 국민의 특유한 교육열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몇 대학이 거론하고 있으나, 이 기여 입학 제도는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몰고 올 것이고 다른 많은 대학들에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사는 방법만이 비대해지면서 홍익인간이라는 인간 회복의 이상은 공염불이 될 것이며 이러한 교육의 풍토가 만들어 내는 한국의 미래는 윤리 부재로 어두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 재원은 설립자와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